

# 고성군 공공기관 청렴도 큰폭 상승

## 8.38점으로 지난해보다 2등급 상승해 3등급 국민권익위,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

고성군이 전국 670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10점 만점에 8.38점으로 지난해보다 2등급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고성군은 지난해 7.32점으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0.96점이

상승해 청렴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지난 14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청렴도는 각 기관 주요 대민·대관업무(총 2,559개)의 민원인(132,036명), 소속 직원(63,745명)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기본으로 하고, 부패공직자가 발생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을 적용해 종합

산출한다.

설문조사는 지난 8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한국리서치·닐슨컴퍼니코리아·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됐다.

권익위는 올해 청렴도 평가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평균 8.43점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 신규 반영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의 강화로 결과적으로 0.01점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유형별 청렴도 1등급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처, 통계청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시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환경공단, 국토연구원,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이다.

도내 군 단위 평가점수는 △인제군 8.59점 △홍천군 8.46점 △고성군 8.38점 △양구군 8.35점 △정선군 8.3점 △양양군 8.29점 △평창군 8.27점 △화천군 8.15점 △영월군 8.11점 △철원군 8.04점 △횡성군 7.71점이다. 최광호 기자

## 구체적 활동방향 논의 통합반대추진위 제1차 운영위원회

고성군 시군통합 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4시 간성읍내 모 식당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속초지역의 시군통합 건의서가 접수될 경우 반대서명운동과 홍보현수막 게시, 전단지 제작 배부 등 3가지 방식의 반대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고성군을 통합 대상에 편입할 경우 내년 5월 고성군 종합운동장에서 5천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썰기대회와 시가행진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어 6월에는 주민대표 400명이 버스 10대에 나눠 타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특히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찬반 투표가 실시될 경우 개별방문 및 가두방송 등을 통해 투표거부 운동을 전개하는 등 총력을 다해 통합을 저지하기로 했다.

반대추진위원회는 이와 함께 일부 찬성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논리를 개발해 홍보하고, 나아가 양양과 인제지역 사회단체들과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군 시군통합 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4시 간성읍내 모 식당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5일 22사단 신병교육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영외면회 제도를 이용해 간성읍내 모 식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 신교대 영외면회 지역경제 큰 도움

### 육군 22사단 영동 유일 시범 운영 ... 주민들 "부대에 감사"

고성군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22사단이 지난달부터 신병교육대 수료식을 마친 병사들이 소속 부대로 가기 전에 약 5시간 정도 영외에서 면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사단에 따르면 육군 22사단은 영동지역에서 유일하게 시범부대로 선정돼 지난주까지 약 500여명의 훈련병과 3천여명의 가족들이 신교대 수료식 후 고성지역에서 영외면회를 실시해 지

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15일 신병교육대 퇴소식에는 훈련병 162명에 면회객이 458명이나 몰렸으며, 이 가운데 5명을 제외한 모든 병사들이 영외면회를 가져 병사와 가족 등 600여명이 한꺼번에 지역에서 식사를 했다.

부대는 영외면회 시간을 오전 11시10분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면회 가능지역을 자대별로 천진~아야진, 교암~가진, 간성, 거진 등 4개 지역으로 엄격하게 지정해 인근 속초지역으로 나

갈 수 없도록 했다.

이날 간성읍에서 면회객들을 맞은 장안숯불갈비 김순복 대표(52세)는 "지역 경기가 좋지 않다 다들 울상인데, 2주에 한번씩 이렇게 병사들과 면회객들이 식당을 찾아줘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영외면회가 가능하도록 해준 사단장님과 군부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보다 친절한 서비스로 면회객들을 맞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